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고부 관계를 중심으로

조 윤 주(성신여대 전임강사)

본 연구는 최근 다문화 가족의 급증 현상을 반영하여 이러한 가족의 형성과 적응 과정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기혼 여성의 생활 적응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나 기존의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시어머니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동거하는 고부를 동시에 면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 이후의 삶 외에도 결혼 전의 과정부터 연구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혼인이라는 생애 사건에 대해 일련의 종합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경험하는 의미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들의 삶을 이해하여 안녕감 고양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기준(criterion) 표집에 의하여 선정하였는데 외국인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 10명과 이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 10명으로 총 20명이었다. 면접하여 녹음된 자료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적인 사례 분석(negative case analysis)과 구성원 확인(member check), 다원화(triangulation)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전 경험에 대해 시어머니의 경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의 선택”이었으며, 하위 범주는 ‘결혼에 매력적이지 않은 아들의 조건’, ‘국제 결혼한 지인의 성공적인 선택’, ‘국제 결혼에 대한 아들의 우호적인 태도와 어머니의 적극적 권유’, ‘며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춤’이다. 며느리는 “가난으로부터의 탈출구”였는데 이는 ‘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국제 결혼한 주위 사람이 선행의 대상이 됨’,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잘 사는 나라라고 인식함’으로 구분된다. 둘째, 결혼 진행 중 경험은 시어머니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으로 나타나 ‘금전적으로나 여러 모로 소모됨’, ‘주위의 엇갈리는 반응’이었다. 며느리는 “통과의례의 과정”으로 생각하여, ‘가족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이전의 생활 수준보다 향상되기를 기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 함’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결혼 후 경험에 대해 시어머니는 “더 다듬어야 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내 가족”, 며느리는 “타인과 비교해 봐도 행복함”으로 집약되었다. 이것의 하위 범주는 각각 ‘문제 발생의 연속인 일상 생활’, ‘문제 발생시 가르쳐서 내 사람을 만들려 함’, ‘당초 낮거나 없었던 기대 수준 대비 높은 만족감’과 ‘음식이나 언어, 풍습 등 문화적 차이’, ‘시어머니의 가르침과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지만 만족스러운 가족 관계’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으로 외국인 며느리의 한국 적응에 미치는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 활용해야 하며, 며느리 모국과 한국에 대한 이해를 일방적이 아닌 상호호혜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결혼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혼소개업체 등 공신력있는 관련 담당 기관을 확대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고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적응 과정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 가는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